

## 히브리 고시(古詩) 번역의 문제들\* - ‘모세의 노래’(신 32:1-43)를 중심으로(제2부)-

김정우\*\*

19 야웨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

그의 자녀들이 화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1) 마소라 사본에서 “야웨께서 보시고 분노하셨다”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sup>1)</sup> 70인역은, “주께서 보시고 질투하셨으며, 분노하셨다(καὶ εἶδεν κύριος καὶ ἐζήλωσεν καὶ παρωξύνθη)”<sup>2)</sup>로 읽는다. 콤란 4동굴에서 발견된 한 본문은 마소라 사본의 ‘분노하다(אָפּוּס)’라는 동사 대신에 ‘질투하다(אַרְבָּץ)’로 읽고 있다.<sup>3)</sup> 따라서, 70인역의 ‘질투하다’는 번역자의 인위적인 첨가가 아니라, 마소라 사본과는 다른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2) 그렇지만, 이 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분노’로 볼 수 있다. 즉, 첫 구의 ‘분노하다(אָפּוּס)’와 둘째 구의 ‘격노함(עַבְרָה)’은 의미론적인 평행을 이루어 준다. 그러나 전자(אָפּוּס)는 동사형이고, 후자(עַבְרָה)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BHS 편집자는 후자를 동사형으로 바꾸며 또한 위치까지 전도시켜 읽도록 제안하고 있다(אָפּוּסִי עַבְרָהּ). 그렇지만, 마소라 사본의 현재 형태도 충분한 의미 전달을 해주고 있다.

(3) 제 2구를 열어주는 전치사 מִן(מִן)은 이유를 제시하여 주며, 따라서 ‘그의 자녀들’은 이 구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과 딸들’로 나타나며(사 43:6; 민 21:29참조), 그들이 주님께 입양되어 부모 되신 주님과 언약관계에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따름으로써 언약을 파기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게 되었다(신 17:2; 29:17; 렘 7:18).

\* 이 논문의 제1부는 「성경원문연구」 제15호에 수록되어 있다.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구약학

1) 문맥을 본다면, “야웨께서 (그 자녀들[19하]의) 우상숭배[16-18절]를 보시고 분노하셨다”로 이해할 수 있다.

2) 70인역은 ‘(그가 그의 자녀들의 자극으로) 도발되었기(παρωξύνθη) 때문에’라는 수동태로 읽고 있으나, 마소라 사본의 ‘그가 분노하였다’라는 능동태도 가능하다. 즉, ‘그의 자녀들이 그를 격동하였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였다’가 된다.

3) Phylactery N.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New York: E. J. Brill, 1996), 187.

20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추리라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리라  
 그들은 타락한 세대요  
 신실하지 못한 자식들이다.

(1) 이 절에서 주님은 ‘내 얼굴을 숨기리라(הִתְחַסֵּא)’와 ‘그들의 종말을 보리라(הִרְאֶה)’<sup>4)</sup>는 두 개의 ‘권유형(cohortative)’으로 친히 말씀하신다. ‘숨다’와 ‘보다’는 지혜 문학과 연관되어 빈번하게 평행을 이루며 나타난다(욥 22:14; 시 10:11; 잠 22:3; 27:12; 아 2:14; 사 29:15; 렘 23:24). 현재의 문맥에서 볼 때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심’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시며(제 1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를 ‘볼 수 없도록’ 하신다(제 2구).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보고 계신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갖 복으로 돌보셨다(신 32:10-14).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적군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2)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라’는 마소라 사본의 독법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הִרְאֶה)’이지만, 70인역은 ‘그들의 종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הִרְאֶה)’로 번역한다. 즉, 이스라엘이 자신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3) ‘세대(דור)’와 ‘자식들(בְּנֵי)’은 구약성경(예, 신 23:9; 29:21; 32:5, 20; 시73:15; 78:4, 6 등)과 우가릿 문헌에서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난다(*UT*, 2:17, 107:2 *dr bnil*, ‘the generation/family of the sons of El’).

(4) ‘신실함(אֱמוּנָה)’이란 단어의 형태는 구약에서 단 한 번 나타나지만, 복수형(אֱמוּנָתָם)은 5회 나타나고 있다.

21 그들은 신이 아닌 자로 나를 질투나게 하고  
 허무한 것들로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  
 어리석은 나라들로 그들을 샘나게 하리라.

20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심으로써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며, 2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신다. 즉,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이 그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분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도 샘이 나고, 화가 나도록 할 것이다.

4) 현재의 동사형은 미완료이지만, 권유형으로 보면, ‘내가 보고자 한다’는 의미가 된다.

(1) 이스라엘은 ‘신이 아닌 자(לֹא-אֱלֹהִים)’와 ‘허무한 것(לִפְתָּוִן)’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즉,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

(2) 제 3구에서 ‘백성이 아닌 자들(לֹא-אֱלֹהִים)’은 신명기 32장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침범할 자들로 여겨진다(24-31절). 그들은 ‘이방민족(גֵּוֹיִם)’이지만, 여기에서는 과분하게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음으로써, ‘질투’ 모티프를 부각시켜준다. 올브라이트(W. F. Albright)은 ‘어리석은 나라’가 앞 6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블렛셋이나, 다른 비이스라엘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지만,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sup>5)</sup>

(3) 제 4구에서 ‘나라들(מְלָכִים)’<sup>6)</sup>로 번역하는 것이 ‘민족’(『표준』, 『공동』, 임승필)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나라’가 ‘민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 22 내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

저 아래 스올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출을 삼키며

산들의 기초를 삼켜버릴 것이다.

(1)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신다. ‘불(אֵשׁ)’은 모든 것을 태우고, 또 정화시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은유로 자주 사용된다(신 4:24; 사 10:17; 33:14; 말 4:1). 첫 구에서 ‘내 분노(אֵשׁ)’는 ‘내 코에서(in my nose)’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단어는 가끔 ‘입(פִּי)’과도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시 18:9; 삼하 22:9). 여기에서 ‘콧구멍(פִּי)’은 ‘분노’가 터져 나오는 장소로 그려진다.

(2) 사마리아 오정은 제 2구의 ‘그리고 불타오르다(וַתִּקְרַח)’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마소라 사본 첫 구의 ‘불이 일어나(וַתִּקְרַח)’가 있어야 ‘저 아래 스올까지 사르다(וַתִּקְרַח)’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sup>7)</sup>

(3) 하나님의 분노는 우주적이며, 여기에서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공간에 분노의 불이 쏟아진다. 이리하여, ‘음부 깊은 곳’과 ‘산들의 터’와 그 사이에 있는 ‘땅과 그 소출’을 모두 태운다.

5)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VT* 9 (1959), 344.

6) מְלָכִים은 케티브에서 גֵּוֹיִם으로도 쓰인다(창 25:23; 시 79:10).

7) F. M. Cross, et al.,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XIV Qumran Cave 4 IX Deuteronomy, Joshua, Judges, King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97. 4QDeut<sup>kl</sup> Frg. 4 Deut 32:22-23을 참조하라.

כִּי־אֵשׁ קָרַחָה בְּאַפִּי<sup>22</sup> 1  
וַיִּבֹן לָהּ וַתִּלְהַט 2  
אֶת־הָאָרֶץ<sup>(23)</sup> 3

(4) 여기에서 ‘땅과 그 소출’은 사람들이 애써 가꾼 것들이므로, 경제적 손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23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쌓고  
그들을 향하여 내 화살을 남김 없이 쏘리라.

(1) 이스라엘의 범죄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제시된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재앙을 쏟으실 것이며, 자신의 모든 파괴적인 세력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치실 것이다. 23-24절에 나오는 ‘칼, 기근, 짐승, 재앙’(겔 14:21)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네 가지 ‘심판도구’로서 모두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2) 이 절은 먼저 포괄적으로 ‘재앙을 쌓을 것이다’로 시작한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쌓아 왔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응징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의 ‘재앙’은 온갖 종류의 악과 파멸과 병과 고통을 뜻하며,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이것들은 전쟁을 통하여 온다.

(3) 제 1구에서 전치사(‘al)은 위치(~위에)라기보다(『개역』, 『표준』), ‘거스르다’는 의미로서 ‘그들을 대적하여’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쌓다’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쌓게 하다(נָסַף)’<sup>8)</sup>로 읽고 있으나, 이런 형태는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므로, BHS 편집자는 70인역(συνάξω)과 불가타(congregabo)를 따라 ‘모으다(נָסַף)’<sup>9)</sup>로 읽도록 제안한다(미 4:6).

(5) 제 2구에는 ‘하나님의 화살’ 영상이 나타난다. 화살 역시 전쟁무기로 ‘재앙’의 은유이다(신 32:24, 42).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화살까지 다 쏘실 것’을 천명하신다.

24 값아먹는 기근, 황폐하게 하는 재앙, 처절한 파멸,  
짐승의 이빨, 티끌에 기어다니는 독사를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 절의 전체적인 행과 구의 구별에 있어서, 사본과 역본에 차이가 있다. 제 1행에 있어서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은 ‘처절한 파멸(נִסְפָּן)’로 시작하고 있으나, 사마리아 오경, BHS, BHL(Dotan)은 ‘값아먹는 기근(עֲבָרָה וְצָר)’으로 시작하고 있다. 제 2행에 있어서 알레포 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은 ‘독과 함께(חֲמַט־וְדָם)’로 시작하지만, 사마리아 오경, BHS, BHL(Dotan)은 ‘짐승의 이빨

8) From נָסַף ‘to sweep or snatch away, catch up’.

9) From נָסַף ‘gather, remove’.

(חִימוּמְךָ-וְשִׁי)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BHS를 따라 본문을 분석하였다.

앞 절의 재앙이 여기에서는 기근의 참혹함으로 나타난다. 이 절은 두 행으로 구성되며, 1행에는 세 개의 구, 2행에서는 두 개의 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절에는 고대의 신화적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역본들마다 다른 독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아래에 있는 『개역』, 『표준』, 『공동』을 보면, 원문의 명사 문장이 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역』 신 32:24 그들이 주리므로 파리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표준』 신 32:24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 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공동』 신 32:24 굶겨 죽이고 열병과 염병으로 쓰러지게 하리라. 짐승의 이빨에 씹어 먹히고 땅 위를 기는 뱀의 독에 죽게 하리라

(1)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보내겠다(נִשְׁלַחְנָם)’는 동사 하나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 동사가 이 절에 언급된 모든 재앙에 걸리고 있다. 즉, 여기에 열거된 모든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친히 보내신 것이다.

(2) 제 1행의 첫 구인 ‘값아먹는 기근(בָּעָרְ וְצָר)’<sup>10</sup>은 매우 어려운 구문이지만, 70인역(τηκόμονοι λιμῶ)과 탈굼 웅켈로스(צָר וְצָר)는 첫 단어를 수동태 분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소라 사본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드 모르(De Moor)는 첫 단어의 어미(語尾) 요드(י)를 일인칭 대명사 접미어로 보고, ‘나의 흡혈귀 기근(hunger my sucker)’으로 제안한다.<sup>11</sup>

(3) 1행 제 2구인 ‘황폐하게 하는 재앙(הַחֲרָבָה וְהַחֲרָבָה)’<sup>12</sup> 역시 문법적으로 제 1구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레셉’은 ‘화살촉(dart)’, ‘불뚝(spark)’<sup>13</sup> 혹

10)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צָר에서 나온 것으로 보며, ‘삼켜지다, 텅 비다(sucked out, empty)’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

11) De Moor, “O Death,” 105,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98에서 인용됨. 그린필드는 아카드어(maza'u/mazu)에 근거하여 צָר로 읽으며(//SP), ‘탈진하다(entkraeftet, ‘exhausted’, ‘squeezed’, ‘raped’)로 이해한다. Jonas C. Greenfield, “Smitten by Famine, Battered by Plague (Deuteronomy 32:24),” J. Marks and R. Good, eds., *Love &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Guilford, Conn.: Four Quarters Pub. Co., 1987), 151.

12) 쿰란 본문도 마소라 사본과 일치한다.

13) Pope, ‘dart’, ‘spark’ (SS 8:6).

은 ‘새(βρώσει ὀρνέων the devouring of birds)’로 이해되기도 한다.<sup>14)</sup> 가나안 신화에서는 레셉(Raşapu)은 ‘재앙의 신’이다.<sup>15)</sup> 하박국 3:5에서 이 용어는 ‘신적 존재’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보내는 재앙의 사자로 이해된다. 따라서 드 모르(De Moor)는 ‘나의 용사 레셉(Resheph, my Warrior)’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번역들은 신화적 차원을 탈색시키고, 대부분 ‘재앙’으로 처리하고 있다.<sup>16)</sup>

(4) 1행 제 3구인 ‘치절한 파멸(קָטַבְתָּ מָוֶתַי)’은 고대의 번역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련(ὀπισθότονος ἀνίατος, 70인역)’, ‘악한 영으로 고생하는 자들(קָטַבְתָּ מָוֶתַי רַחֲוֹן בְּיַשְׁיִן 타르굼)’, ‘가장 치명적인 물어뜯음으로(aves morsu amarissimo, 불가타)’ 등으로 제시되며, 현대어 번역에서는 ‘치명적 파멸’(‘bitter destruction’, JPS, NAS; ‘deadly plague’, NIV; ‘the bitter scourge’, NJB; ‘poisonous pestilence’, RSV)과, 우리말 성서에서는 ‘독한 파멸’(『개역』), ‘독한 질병’(『개역개정』), ‘열병’(『표준』), ‘염병’(『공동』), ‘모진 염병’(임승필), ‘참혹한 파괴’(정중호) 등으로 제시된다.

이 구에서 첫 단어(קָטַבְתָּ)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파멸(destruction)’로 제시되어왔지만(BDB), 최근에는 ‘귀신의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다(HALOT). 이 단어는 현재의 문맥에서 ‘레셉’과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아람어에서도 ‘(재앙) 귀신의 이름(JArm. קָטַבְתָּ)’으로 나타나며,<sup>17)</sup> 시편 91:6에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קָטַבְתָּ)’과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 단어는 ‘파멸을 가져오는 귀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sup>18)</sup> ‘파멸’과 이어진 두 번째 단어(מָוֶתַי)는 구약에서 단 한번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쓰리다, 지독하다(מָוֶתַי)’라는 뜻을 어근으로 갖고 있다.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이 단어의 마지막 요드는 드 모르와 함께 인칭 접미어로 본다면, ‘나의 독, 쏘는 자(the Sting, my poisonous One)’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 1행에 제시된 추상적인 ‘세 죽음의 사자(קָטַבְתָּ מָוֶתַי רַחֲוֹן)’를 뒤따라 제 2행에서는 구체적인 짐승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2행 첫 구에서는 ‘짐승의 이빨’이, 둘째 구에서는 ‘티끌에 기어다니는 것의 독’이 등장한다. 이 중앙에 ‘내가 그들에게 보

14) 욥기 5:7하, “불티(רַחֲוֹן)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개역』)는 새의 영상으로 레셉을 이해한다.

15) 그린필드는 מָוֶתַי에 대하여 ‘combattus’, ‘battered’로 보며, 레셉을 ‘combative deity’로 이해한다. Jonas C. Greenfield, “Smitten by Famine, Battered by Plague (Deuteronomy 32:24),” 151.

16) Ršp, ‘burning heat’ or ‘fever’(RSV, NAB), ‘flames, sparks’(NJPS, NEB).

17) S. Rummel, *Ras Shamra Parallels*, vol. 3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81) 395h, 414d, f. “호 13:14에서 קָטַבְתָּ와 מָוֶתַי는 ‘분명히 그의 종 혹은 사신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어 *qurtaba*와의 관계는 의문시되고 있다(KBL, ‘sting, thorn’). J. Blau, “Über Homonyme und Angeblich Homonyme Wurzeln II,” *VT* 7 (1957), 98을 보라.

18)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196. 그는 드 모르(De Moor)가 ‘죽음의 신 모트의 아들 케테브’로 이해함을 소개한다.

내리라'가 나타남으로써, 이중 기능을 하게 된다. '티끌에 기어다니는 것'은 뱀을 가리킨다(미 7:17). 여기에서 '이빨(יָדָה)'은 무서움을, '독(דָּמָה)'<sup>19)</sup>은 특별히 그 치명성과 적대성을 부각시켜 준다.

25 밖에서는 칼이 목숨을 앗아가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며  
총각과 처녀, 젓먹이와 노인이 모두 죽을 것이다.

(1) 제 1행에는 목적어가 없으며,<sup>20)</sup> 2행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sup>21)</sup> 따라서 우리는 1행의 목적어는 2행에, 2행의 동사는 1행에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즉, 1행의 '칼이' 목적어를 앗아가다(בָּרַחַ)가 문장 전체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기에서 '칼'은 '전쟁'에 대한 환유이다(21절 참조). '칼'로 표현된 전쟁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 모든 연령층에 미친다.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남자와 여자, 젓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 즉 모든 연령층을 포함한다. 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은 피할 곳도 없으며, 전쟁에 출전하든 하지 않든,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의 평민들에게까지 임하고 있다. 이것은 적의 군대가 성에 침입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총각'과 '처녀'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모든 젊은 사람'을 말한다(대하 36:17; 시 78:63; 148:12; 사 23:4; 62:5; 렘 31:13; 51:22; 애 1:15, 18; 2:21; 겔 9:6; 암 8:13; 숙 9:17).

26 내가 그들을 쳐부수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다.

(1)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독백의 형식(אַמְרָתִי)'으로 나타난다.<sup>22)</sup> '~하였다'는 가정절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지만,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2) 이 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홀다'(*『개역』*)로 번역된 첫 구의 동사(פָּאָה)의 의미에 있다. 이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나며(hapax legomeno), 대

19)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뜨거움'(겔 3:14), '분노'(창 27:44; 잠 15:1)를 가리키지만 여러 문맥에서 '짐승의 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신 32:24, 33; 시 58:5; 140:4).

20) 『공동』역에서는 '한 식구가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라며, 목적어를 인위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21) 우리말 번역에는 '멸망하다'(*『개역』*, *『개역개정』*), '놀라 죽다'(*『표준』*) 등 동사를 첨가하고 있다.

22) 4QDeut<sup>kl</sup> Frg.5 Deut 32:25-27를 참조하라.

부분의 번역들은 70인역(δισσπερω)을 따라서 ‘홀다’로 제시한다(RSV, NIV, 『표준』, 『개역』). 아퀼라, 페쉬타와 불가타 역시 ‘그들을 홀다(חָסְדָם)’로 읽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동사는 ‘산산이 조각나다(BDB, ‘cleave in pieces’), 혹은 ‘쳐부수다, 쓸어버리다(HALOT, ‘to strike down, wipe out’)'의 의미로 제시된다. 후자는 아랍어 어근(fw/y), ‘(칼 바람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진다(HALOT). 이리하여, ‘깨뜨리다’(NASB), ‘산산이 부수다’(NJB), ‘박살내다’(『공동』) 등으로 번역된다.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그들은 나의 분노(חַמַּתִּי אֲנִי)’로 읽고 있으나, 이 독법은 원문이 어려움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홀다’보다는 뒤따른 구, 즉 ‘그들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 버리다’와 대구를 만드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쳐부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sup>23)</sup>

(3) 제 2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는 것’을 담고 있다. 이리하여 ‘기억’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7절). 앞에서는 ‘기억하다’가 ‘깨닫다’와 함께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27 내가 원수의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대적이 착각하여

“우리의 권세가 높음ियो,

야웨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이 아니라”고 말할까 염려하였다.

이 절의 구문은 매우 까다롭다. 여기에서는 ‘~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두 개의 불변사(חָסַד [1회], יָדָע [2회])가 모두 세 번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말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나 문장의 흐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약간 의역하였다.<sup>24)</sup>

(1) 여기에서 조건절을 이끄는 첫 불변사 형태(חָסַד)는 일반적으로 더 짧은 형태인 ‘루(יָ)’로 나타나며, 전자는 ‘부정형(if ~not)’에, 후자는 긍정적 상황에 나타나고 있다. 이 가정절은 ‘실제적(real)’이거나, ‘비실제적(unreal)’인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sup>25)</sup>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실제로 멸하려고 하였지만, 이외의 변수가 생겼다.

(2) 하나님은 ‘원수의 도발’을 ‘두려워신다(חָסַד)’는 표현은 우리의 귀에 매우

23) 참조 P. Sanders는 ‘destroy’로 번역하였다.

24) 이 구절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내가 원수들의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חָסַד)/ 그들의 대적이 착각하지 않도록(יָדָע)/ ‘우리의 권세가 높음ियो./ 야웨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이 아니라’고 말할까봐(יָדָע)”

25) Paul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 Muraoka, trans.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1) §167 f.



어색하다. 여기의 동사(רָגַז)는 기본적으로 ‘머물다’는 뜻이지만, 세 번째 의미(רָגַז III)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다(신 18:22; 욥 41:17; 시 22:24; 33:8, HALOT). 70인역은 이런 신인동감적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원수들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그것이 길어지지 않도록(ὅνα μὴ μακροχρονίσωσιν)”으로 의역하였다.

(3) 하나님은 ‘원수의 도발’과 ‘대적의 착각’을 두려워하신다. ‘착각하다(רָגַז 피엘형)’는 ‘판단을 잘못 내리다’라는 뜻이다.

(4) 제 2행 첫 구에서 ‘우리의 손들(יְדֵינוּ)’이 ‘높다(רָמָה)’는 문법적으로 수의 일치를 깨뜨리고 있다(복수 주어+단수 동사). 여러 필사본들과 알레포 코덱스와 여러 역본들(LXX, Vul, Pesh.)에는 단수 주어(יְדֵי)로 나타난다(BHS 난하주).

(5) 제 2행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접미형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רָמָה רָמַת). 대부분의 번역들은 시체에 있어서, ‘현재’와 ‘과거’를 뒤섞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입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둘 다 ‘과거’로 이해하고자 한다. 즉, 원수들은 이전에 싸워 이긴 승리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28 참으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백성이요,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도다.

(1) 이 문장을 시작하는 불변사(יָדָה)는 우리말 번역에는 대부분 생략되며, 영어 번역에서는 대부분 ‘이유(for)’로 제시되지만, 우리는 ‘강의형’으로 보았다.

(2) ‘모략이 없는 백성(עַמּוֹת אֲבָרָה)’은 ‘보충해설적 속격(epexegetical genitive)’으로서, ‘모략에 관한 한 상실되다(lost as far as counsel is concerned)’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26)</sup>

(3) 여기에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Craigie, Knight),<sup>27)</sup> ‘원수들’로 보아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파악된다(Tigay, Fokkelman, Sanders). 물론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으로 불려졌다(6절). 그러나 이 칭호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이 점이 이 시의 ‘수사학’에서 매우 흥미롭다. 한 칭호가 두 개의 다른 대상에게 적용되며,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 사이에 누가 더 ‘무지한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략’과 ‘지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승리에 대하여 오관하게 되었다.

26)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07.

27) 『표준』에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9 그들이 지혜로웠다면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며,  
그들의 최후를 분별하였을 것이다.

(1) 27절의 ‘대적’과 ‘원수’는 28절에서 ‘그들’로 나타나며, 이 절에서 계속된다. 또한 앞 두 절의 ‘수단’(27절), ‘모략’과 ‘지식’(28절)은 여기에서 ‘지혜’, ‘깨달음’, ‘분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의 주제가 나타난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대적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없다. 둘 다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다.

(2) 제 2구에서 『개역』의 ‘종말(אַחֵרִית)’이란 단어는 ‘미래’(NAS), ‘끝’(NIV), ‘운명’(NJB), ‘종말’(RSV) 등으로 번역되지만, 샌더스(Sanders)는 동일한 구가 시편 73:17에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하며, ‘매우 가까운 과거(one of the more recent past)’로 이해한다. 즉,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경험(their last experience)을 생각하지 않았다.’<sup>28)</sup> 달리 말하자면, 여기에서 ‘종말’은 먼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곧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한 시간적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이 시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파국을 경험하였다).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야웨께서 그들을 넘겨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명이 천 명을,  
두 명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1) 우리는 바로 앞 절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이 절 역시 ‘최근 사건’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첫 두 구에 나오는 접두형 동사 변화는 ‘과거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Yiqtol or yaqtul preterite).

(2) 히브리어 원문의 1-2구와 3-4구는 현재 우리의 번역문에서 각각 3-4구와 1-2구로 위치가 전도되었다. 우리는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하여 구를 도치시켜 번역하였다.

(3) 이 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첫 구(Heb. 3구)의 ‘그들의 반석’은 둘째 구(Heb. 4구)의 ‘야웨’와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그들’ 즉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파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1-2구는 원수의 생각이다.

28)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07.

(4) 그렇지만, “어떻게 한 명이 천 명을, 둘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3-4구[히1-2구])는 ‘원수의 탄성’일 수도 있지만, ‘시인의 탄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주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메신저의 자유’로 본다면,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sup>29)</sup> 그렇지만, 시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올브라이트(Albright)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수들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패배시킴을 인정한다(1-2구). 시인도 놀라면서 이것을 받아들인다(3-4구).”<sup>30)</sup>

(5)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다면(יָצַק אֱלֹהֵיכֶם)’이라는 히브리어 구문은 오직 여기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불변사 יָצַק 없이 אֱלֹהֵיכֶם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두 형식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삼상 10:1; 삼하 13:28 참조). 이스라엘의 패배는 너무나 철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무료로, 싸구려로 파신 것과 같았음을 말하고 있다(삿 2:14; 3:8; 4:2, 9; 10:7; 삼상 12:9; 겔 30:12; 시 44:14 [히13절]).

31 참으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대적들도 인정한다.

(1) 이제 시인의 말이 나오며, 그는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을 대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석’은 ‘신’을 표현하므로, ‘대적의 반석’은 ‘대적의 신’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인이 이방의 신을 인정하였다는 것보다, ‘소위 대적의 반석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신과 국가와 백성은 하나였다. 그러나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출 14:25; 민 23-24; 수 2:9-11).

(2)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개역』)는 원문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재판관이다’로 읽고 있다(מִי־יִשְׁפֹּט אֶת־עַמִּי). 여기에서 ‘재판관(מִי־יִשְׁפֹּט)’으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물론 이 번역은 고대역본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탈굼, 페쉬타, 불가타), 70인역은 ‘지혜롭지 못하다(ἀνόητος 즉 מִי־יִשְׁפֹּט)’로 읽는다. 그렇지만, 올로프손(Olofsson)에 따르면 70인역의 독법은 그 신학적 경향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짐으로,<sup>31)</sup> 마소라 사본의 독법을 따라 읽는 것이 더 좋아

29)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12.

30) *Ibid.*, 213. 역시 같은 입장이다. 올브라이트(Albright)은 30-3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고/ 야웨께서 그들을 넘겨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명이 천 명을,/ 둘이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우리의 반석은 (그들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대적들도 인정하지 않는가?”

31) S. Olofsson, *God is My Rock. A Study of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ical Exegesis in the Septuagint*, *Coniectanea Biblica OTS* 31 (Stockholm: Almqvist & Wilsell Internation, 1990), 40.

보인다. 이 용어는 출애굽기 21:22에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מִשְׁפָּט)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는 맥락에 나오고 있다.<sup>32)</sup> 이런 맥락에서 스페이저(E. A. Speiser)는 이 단어가 추상명사로서 ‘평가(estimat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그는 이사야 16:3에서 ‘모략(מַחְסֵם)을 베풀며’와 ‘공의로 판결하며(מִשְׁפָּט)’가 평행을 이룸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33)</sup> 정리하자면, 이방 백성들조차 그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심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2 참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포도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포도이며  
송이마다 독이다.

(1) 이 절은 ‘참으로(כִּי)’라는 불변사로부터 시작한다. 이 불변사는 가끔 번역에서 생략되며(NIV, 『개역』, 『표준』, 『공동』, 임승필), 대부분 ‘왜냐하면(for)’으로 번역된다(JPS, NAS, NJB, RSV, Targum אַרְי). 70인역(γὰρ)은 ‘왜냐하면’ 혹은 ‘참으로’로 모두 볼 수 있다. 우리는 ‘강의형’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2) 이 절은 음성학적인 평행법이 두드러진다. ‘포도나무(קַדְדָּן)’가 반복될 뿐 아니라(2회), ‘포도(כַּבֵּב)’와 이어지며(2회), ‘소돔(סֹדֹם)’과 ‘(고모라의) 별판(מִשְׁפָּט)’이 유사한 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3) ‘밭’(『개역』, 『표준』, 임승필), 혹은 ‘별판’(『공동』)으로 번역된 단어(מִשְׁפָּט)에 대하여, 레만(Lehmann)<sup>34)</sup>은 우가릿 문헌에 근거하여 이 단어가 ‘별판(מִשְׁפָּט)’과 ‘죽음(מָוֵת 모트)’의 합성어로서, ‘모트의 별판’으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야트(Wyatt)는 왕하 23:4와 렘 31:40에서는 ‘모트의 들판(field of Mot)’으로서 ‘죽음의 신의 제의와 어느 정도 연관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히브리어 šd(h)가 우가릿어 šd에서 나온 것으로 단순화 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5)</sup> 그는 나아가 현재의 문맥이 포도 농사와 연관된 것이며, 이 단어가 포도 농

32) HALOT, “בְּכַלְלֵי־אִיִּם”은 ‘조정자가 임신한 아내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는 조정자 앞에서’라는 의미이다.”

33) E. A. Speiser, “The Stem *pll* in Hebrew,” *JBL* 82 (1963), 302-304.

34) M. R. Lehmann,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erm מִשְׁפָּט,” *VT* 3 (1953), 361. 그는 이 단어에 대한 성서의 용례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을 잘 정리하였다. ①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여성 복수로 보이지만, 남성단수로 취급된다(합 3:17; 사 16:8; 렘 31:39). ② 이것은 항상 비-유대교적 이방 제의나 백성과 연관된다(신 32:32; 사 16:8; 왕하 23:4; 렘 31:39; 합 3:17). ③ 농사적인 맥락에서 항상 불모와 불임과 연관된다(신 32:32-33; 사 16:8; 렘 31:39; 합 3:17).

사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사 16:8; 합 3:17; KTU I.23.9-11),<sup>36)</sup> ‘덩쿨 (bine)’로 번역하도록 제안한다. 샌더스(Sanders)는 드 모르(De Moor)를 따라서 ‘계단식 농경지(terrace)’로 번역하고 있다(*HALOT*).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단어가 주로 포도 농사와 연관된 경작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포도원’으로 번역하였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경작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BDB*, *HALOT*), ‘포도 밭’이라기보다는 ‘포도원’이 더 적절해 보인다.

(4) ‘포도(ענב)’와 ‘송이(בִּישָׁן)’는 가끔 대구를 이루고 있다(창 40:10; 민 13:23; 신 32:32).

(5) ‘독포도(שִׁירֵי רִירָא)’로 번역된 단어는 크게 ‘쓸개포도’(『개역』, JPS), ‘독포도’(『표준』, 『공동』, 임승필, NAS, NIV, NJB, RSV, Sanders, O'Connor)로 번역이 나누어지고 있다. 맥케인은 ‘쓸개’ 혹은 ‘독’으로 번역된 단어(שִׁירָא)가 구약성서에서 네 가지 용례로 사용됨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① 이것은 식물이나 약초이다(신 29:17). ② 이것은 ‘독’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신 32:32; 시 69:22). ③ ‘물’과 함께 나타날 때(שִׁירָא מַיִם) 이것은 ‘독을 탄 음료’로서, 이 때의 독(שִׁירָא)은 식물에서 나온 것이다(렘 8:14; 9:14; 23:15). ④ 신명기 32:33과 욥기 20:16에서 이 용어는 특정한 독으로서, ‘뱀의 독’으로 나타난다.<sup>38)</sup>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독포도’로 번역하였다.

(6) 대부분의 성서번역에서 ‘쓰다’로 번역된 단어(מָרָה)는 형용사이거나(from מָרָה), 명사(מָרָה)일 수 있다. 후자일 경우에는 ‘독 송이’가 되며, ‘쓴 송이’보다 더욱 강력해진다. 우리는 전자로 보고 번역하였다.

###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치명적인 독이다.

(1) 32-33절은 명사 문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절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며,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오늘날 주석가들은 대부분 ‘그들’을 ‘이스라엘의 원

35) N. Wyatt, “A New Look at Ugaritic šdmt,” *JSS* 37 (1992), 153.

36) “The vine-pruners prune him, the vine-binders bind him, they cause his šdmt to fall like a vine.” (*yzbrnn zbrm gpn yšmdnn šmdn gpn yšql šdmth km gpn*)

37) W. McKane, “Poison, Trial by Ordeal and the Cup of Wrath,” *VT* 30 (1980), 478-483.

38) *Ibid.*, 479. 이 나무의 정체에 대하여 맥케인은 게세니우스가 부인하는 세 가지 식물로서 *cicuta*, ‘hemlock(독미나리)’, *colocynth*, 혹은 *lolium*, ‘darnell(호밀풀)’, ‘tares(가라지?, Lowth의 견해)’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식물로서 *papaver*, ‘poppy’로서 이 식물을 ‘머리 부분’을 가리킨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그 자신은 שִׁירָא를 ‘아편(opium)’으로 해석하고 있다(*Ibid.*, 481).

수(אִיבִּינִי)’로 보고 있다(31절하).<sup>39)</sup>

(2) 앞 절에 이어 포도나무와 독의 영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 ‘그들의 술’은 세 쌍을 이루어, 그 존재(나무)와 행위(열매와 가공품)가 어떠함을 말해준다.

34 내가 이것을 쌓아두고

내 공간에 인봉하여 두지 않았느냐?

(1) 앞의 두 절에서 왜 ‘포도나무’와 ‘독’이 언급되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즉, 이 독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 독은 분명히 ‘원수’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 술은 누가 마실 것인가? 이 점에 대하여 34-35절이 말해주고 있다.

(2) 34절은 ‘이것이 내게 쌓여 있지 않느냐?’는 수동태의 문장이지만, 우리말의 어감을 위하여 능동태로 수정하였다. 여기에서 ‘쌓여 있다(בָּנֵה)’라는 동사는 구약성서에서 단 한 번 나타나지만, 아카드어(kamasu, ‘to gather’)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으므로, BHS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오경을 따라 ‘모으다(בָּנֵה, ‘to gather’)’로 수정할 이유가 없다.<sup>40)</sup>

(3) ‘공간’(『개역』)은 현대어 ‘창고’(『공동』, 정중호)보다 어감이 더 좋다. 또한 이 단어는 ‘보고’(임승필)로 번역될 수 있으나, ‘독’을 ‘보물창고’에 둔다는 것도 어색해 보인다. 이 공간(בֵּית)은 ‘하늘’(신 28:12)이나 ‘지상’에 있을 수 있다.

(4)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주어진 ‘포도주의 축복’(14절하)이 이제 저주로 변하고 있다.

35 복수와 보응은 나의 일이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깝다.

그들의 끝날이 다가왔다.

(1) 마소라 사본의 ‘나에게 속하였다(בָּנֵה)’에 대하여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εὐ ἠμέρα)은 ‘날(בֵּית)’로 읽는다. 후자의 독법은 제 3구와 평행을 이루어 ‘복수와 보응의 날’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사 34:8; 61:2; 63:2; 잠 6:34). 그렇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는 구문도 일반적이다(롬 12:19; 히 10:30 참조).

(2) 제 1구의 ‘보응(בָּנֵה)’은 구약성서에서 세 번에 걸쳐 인명으로 나타나며(창

39)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24.

40) *Ibid.*, 226.

46:24; 민 26:29; 대상 7:13), ‘보응’이라는 뜻으로는 유일하게 오직 여기에만 나타난다. ‘보응’은 일반적으로 같은 어근에 다른 형태인 *בָּעָנָה*로 나타난다(사 34:8; 호 9:7; 미 7:3). 따라서 BHS에서는 ‘내가 복수하리라’라는 동사(*בָּעָנָה*)로 읽도록 제안하고 있다.

(3) 제 2구의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는 구문적으로 볼 때 제 1구에 걸리지 만, 번역은 까다롭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응은 나의 일이다’는 어색하므로, 우리는 이 두 구를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의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샌더스는 이 영상이 앞 절에 있는 ‘술취함’을 암시하며, “시인은 원수의 독주가 이제 그들 자신을 취하게 한다”고 해석한다.<sup>41)</sup> 그러나 ‘실족함’을 ‘군사적인 패배’로 볼 수도 있다(시 38:17; 66:9; 94:18; 121:3).

36 야웨께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곧 그들이 무력해지고  
종도 자유자도 없음을 보실 때이다.

(1) 이제 시인이 다시 말하고 있으며, 그는 이 시를 마무리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연민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죄인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장면은 시내 산에서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의 기도를 연상시켜 준다(출 32:12하).

(2) 제 2구의 동사(*בָּעָנָה*)는 ‘후회하다’(『개역』, JPS)와 ‘불쌍히 여기다’(『개역개정』, 『표준』, 『공동』, NAS, NIV, NJB, RSV)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되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더욱 강조해준다(HALOT, 민 23:19; 신 32:36; 시 135:14).<sup>42)</sup> ‘판단하다(*בָּחַן*)’와 ‘불쌍히 여기다(*בָּעָנָה*)’가 평행을 이룰 때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시 135:14).<sup>43)</sup>

(3) 제 4구에 나오는 두 개의 명사(*עֲצוּבִים*, *עֲצוּבִים*)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번역 성경에서는 대부분, ‘간힌 자’와 ‘농인 자’(『개역』, 『표준』, 『공동』, RSV), 혹은 ‘노예’와 ‘자유인’(임승필, NIV), 혹은 ‘결혼한 자’나 ‘미혼’으로 보고 있다(정중호). 샌더스는 탈몬(Sh. Talmon)을 따라서 이것을 중언법(hendiadys)으로 보고, ‘통치자’와 ‘지도자’로 제시한다. 포켈만(Fokkelman)도 ‘통치자’와 ‘도

41) Ibid., 229.

42) 정중호는 ‘만족케 하다’로 번역하지만 어떤 근거인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3)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31.

우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 구는 구약성서에서 여러 번 나오며(왕상 14:10; 21:21; 왕하 9:8; 14:26), 대부분 '두 개의 대립적인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4)</sup> 어떻게 보든 간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준다.

37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sup>45)</sup>

(1) 사마리아 오경은 '그들이 말하기를(ואמרו)'로 읽음으로써, 주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만,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다.

(2) 여기에서 '그들'은 앞 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원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3) '그들이 피하다(יָפְחוּ)'로 제시된 동사 형태는 '시적(poetic)' 혹은 '고대적(archaic)'인 것으로 해석된다.<sup>46)</sup> 시편에는 동일한 동사가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시 57:2[히], יָפְחוּ [3인칭여성단수]; 36:8, יָפְחוּ [3인칭복수+paragogic nun]).

44) HALOT에서는 여섯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종과 자유자 (Gesenius *Thesaurus* 1008a); (2) 타부 아래에 있는 자들과 순결한 자(Schwally *Krieg* 59f; Brockelmann *Heb. Syn.*); (3) 피지배자와 자유자(Koenig *Wb.* 344a); (4) 군대에 소집된 자들과 의무가 면제된 자 (Seebass *VT* 25, 182f); (5) 가족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런 보호를 상실한 자 (Driver *BZAW* 103 [1968], 94); (6) 부모와 보호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것에서 면제된 자 (Kutsch *VT* 2 (1952), 57-69; Noth *Krige* 316; Willi *Fachr. Zimmerli* 540). 이 가운데 HALOT는 여섯 번째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45) Cross,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XIV Qumran Cave 4 IX Deuteronomy, Joshua, Judges, Kings*, 139. 4QDeut<sup>a</sup> Frgs. 2-5i Deut 32:37-41c를 참조하라.

[top margin]

1	וְאָעֲמַר יְהוָה אִיהָ אֱלֹהֵימוֹעַ
2	ע . עַ אֲשֶׁר חָסִיו בּוֹעַ
3	אֲשֶׁר עָחַלְבְּעִי זִבְחִימוֹ יֹאכְלוֹעַ <sup>38</sup>
4	יִשְׁתּוֹעַ יִין נָסִיכֶםעַ
5	יִקְוִמוֹ וְעִיעֹזְרֶכֶם יְהִי עֲלֵיכֶם סִתְרֵהעַ
6	אֲנִי אֲמִית וְעַתָּה עִבִי אֲנִי הוּא וְאִין אֱלֹהִים עֲמֹדִיעַ <sup>39</sup>
7	אֲנִי אֲמִית וְאִחִיהַּ מִחֲצִיתִי וְאִנִּי אֲרַפֵּאעַ
8 <sup>37-5</sup>	וְאִין מוֹדִיעַ מִצִּיל <sup>40</sup> כִּי אֲעִשָׂא אֶל־שָׁמוּם יַעֲדִיעַ
9	וְאִנְרַחֲתִי חִי עֲאֻנְכִי לְעוֹלָםעַ
10	אֲעִם שְׁנַתִּי בְרַק חֲרָבִיעַ <sup>41</sup>
11	וְתֹאחֲזוּ עֲבַמְשַׁפֵּשֵׁת יַדֵּיעַ אֲשִׁיב נָקָםעַ עֲלֹצְרִיעַ

[bottom margin]

46) GK §29t, 75u. D. A. Robertson,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Missora, 1972), 57-62;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34.



38 그들은 그들이 바친 기름진 희생 제물을 먹고  
 그들이 바친 전제의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그들로 일어나서 너희의 도움이 되게 하여라  
 그들로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1) 70인역은 이 절에서 “그들의 희생제물의 기름을 너희가 먹었고, 그들 전제의 술을 너희가 마셨다”로 읽고 있다.<sup>47)</sup> 이것은 신들이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70인역 번역자들의 신학적 전제 때문에 수정된 본문으로 이해된다.

(2) 제 1, 2 구의 원문에서는 ‘~하지 않았느냐?’ 대신에 직설법으로 ‘하였다’로 나오고 있지만, 이 행은 바로 앞 절(37절)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강조 어법을 살려서 ‘마시지 않았느냐?’로 번역하였다.

39 이제는 보아라. 참으로 나 곧 내가 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였지만 낮게도 할 것이다.  
 내 손에서 빼내어 갈 자가 없다.

(1) 이 절의 행과 구를 구분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먼저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은 ‘없다(אין)’와 ‘나는 상하게도 한다(אני אלהים)’를 두 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BHS는 ‘이제는 보라(הנה אלהים)’와 ‘나는 죽이기도 하며(אני)’를 두 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리하여 레닌그라드 사본과 알레포 사본은 ‘이제는 보아라’를 앞 행(L, 61행, A, 58행)으로 보내며, BHS는 ‘내 손에서 빼내어 갈 자가 없다’를 대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현재 BHS와 포켈만과 샌더스는 이 절을 모두 다섯 구로 나누고 있으며, 한 절이 다섯 구로 구성된 것은 이 시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70인역은 ‘보라, 보라(ἴδετε ἴδετε)’를 반복하며, 보스톤(Boston)과 오코너(O'Connor)는 이 구를 독자적으로 보며, 첫 행을 세 구(tricolon)로 만들고 있다. 사마리아 오경과 4QDt<sup>a</sup>는 현재 마소라 사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나 곧 내가 그이다(אני אלהים אני)’라는 구문에서 ‘나’가 두 번 연속하여 반복된 것이 어색하여 보이며, ‘그’를 중앙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אני אלהים אני). 그러나 일인칭이 반복되는 구문이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며(사 48:15;

47) “(οἱ θεοί)... ὦν τὸ στέαρ τῶν θυσιῶν αὐτῶν ἠσθίετε καὶ ἐπίνετε τὸν οἶνον τῶν σπονδῶν αὐτῶν”.

호 5:14),<sup>48)</sup> 올브라이트(Albright)은 중앙에 있는 ‘그’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의 전형적인 ‘계접 대명사(copulative pronoun)’로서,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다’라는 제 5행과 정확하게 평행을 이룬다”고 본다.<sup>49)</sup>

(3) ‘나 외에는’이라는 전치사 구에서, 전치사(תַּחַת)는 ‘함께’, ‘~같이’, ‘외에’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나 외에’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즉, ‘주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은 없다.’

(4) 제 4구에서 ‘나는 상하게도 하였지만 낮게도 할 것이다’는 동사의 두 형태(접미어, 접두어 변화)를 반영한 번역이다. 우리말 성서에서는 ‘나는 상하게 하였다(אֲנִי הִשָּׁחֵתְתִּי)’와 ‘나는 낮게도 할 것이다(אֲנִי הִשְׁתַּחֲוִיתִי)’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내가 상하게 하였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과거의 사건들을 반영시켜 주며, ‘내가 낮게 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미래의 의지를 천명해 준다.

(5) 39절을 크게 두 행으로 보았을 때, 제 1행의 말씀, “이제는 보아라. 참으로 나 곧 내가 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일반적으로 천명해 주며, 제 2행인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였으며 낮게도 할 것이다 내 손에서 빼내어 갈 자가 없다”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준다.

40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  
내가 영원히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1) ‘내가 손을 들어’는 맹세 형식이다(출 6:8; 민 14:30; 신 32:40; 겔 20:4; 시 106:26; 느 9:15 등).

(2)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어’에서 ‘하늘을 향하여’는 인간들의 맹세의식을 반영해 주므로, ‘신인동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70인역은 이 점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오른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 내 오른 손으로 맹세한다(καὶ ὁμοῦμαι τῇ δεξιᾷ μου)’로 신학적 수정을 하고 있다.

41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아두었고  
내 손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에,  
나의 대적에게 보복할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48) אֲנִי אֲנִי אֲנִי(사 48:15) אֲנִי אֲנִי אֲנִי(호 5:14). 참조,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38.

49) William Foxwell Albright,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342.

(1) 이 절에 있어서도 시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 1행 첫구는 ‘과거’(접미형)이며, 제 2구는 ‘미래’(접두형)이다. 즉,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갈아 두었으며(יָחַד 1구)’, 따라서 ‘심판을 하려고 하신다(יַחַד 2구)’. 이렇게 다른 두 시제로 보는 것은 둘 다 미래형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우리말 성서는 모두 미래형으로 보고 있다).

(2) 이 절을 시작하는 불변사 וַאֲנִי는 대부분의 번역에서 ‘가정(if)’으로 이해되지만(JPS, NAS, NJB, RSV), 여기에서는 ‘시간(when)’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NIV).

(3) ‘나의 번쩍이는 칼’은 직역하자면, ‘내 칼의 번쩍임’이지만, 여기에서는 ‘칼날’의 예리함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나 3:3; 함 3:11).

42 내 화살들은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며,  
내 칼은 살을 벨 것이다.  
곧 죽은 자와 포로의 피요,  
적장의 머리이다.

(1) 첫 구의 동사 ‘마실 것이다(יִשְׁתֶּה)’는 4QDt<sup>9</sup>에서 권유형으로 ‘마시게 하라(יִשְׁתֶּה)’로 제시되나, 마소라의 독법은 사마리아 오경 및 70인역(μεθύσω)과 일치한다.

(2) 앞에서 주님은 불신실한 이스라엘을 ‘활’(23절)과 ‘칼’(25절)로 죽일 것을 말씀하셨으나,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의 활과 칼이 이스라엘의 적을 향하고 있다.

(3) 우리의 번역에 따르면, 1구의 ‘피’는 3구의 ‘피’와 이어지며, 2구의 ‘칼’은 4구의 ‘적장의 머리’와 이어진다.

(4) 제 4구의 ‘적장(אֵינִי מִן הַיָּמִין)’에서 첫 단어는 크게 ‘지도자’(NIV, 『개역』, 『표준』)와 ‘긴 머리를 늘어뜨린’(JPS, NAS, NJB, RSV, 『공동』)이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갈라진다. 동일한 단어는 사사기 5:2에도 나오며, 70인역은 여기에서 ‘지도자들(ἀρχηγους)’로 읽고 있으며, 현재 신명기의 본문에서도 ‘지도자(ἀρχόντων)’로 번역한다.<sup>50)</sup> 우가릿어에서도 명사형 어근(pr‘t)은 ‘지도자’ 혹은 ‘주권자’를 가리킨다.<sup>51)</sup>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עָרַב)는 기본적으로 ‘느슨하게 하다(to let

50) 즉,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로 읽는다. 테오도선도 이 독법을 지지하며, 소위 B그룹은 ‘계시가 이스라엘에 계시되었다(ἀπεκαλύφθη ἀποκάλυμμα ἐν Ἰσραηλ)’로 읽는다.

51) P.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246. 잔젠은 사사기 5:2에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to let go, let alone, disregard’라는 의미를 가지며, ‘머리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잠 1:24-25에서 ‘무시하다’(pr‘)라는 의미로서, ‘하려고 하다(willin, ‘bh)와 대구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잠 4:15, ‘avoid’ / turn away). 이리하여 그는, 샷 5:2에서 “when the rebels cast off

loose)’라는 의미를 지니며(레 10:6; 13:45; 21:10; 민 5:18), 특히 민수기 6:5에서는 나실인의 규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흐트러진 긴 머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삿 13:5; 16:17). 현재의 문맥에서는 ‘장군’ 혹은 ‘지도자’로 이해하였다.

43 열국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가 그의 종들의 피를 갚아 주시고,  
그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그의 땅과 그의 백성들을 속죄해주실 것이다.

(1) 앞 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이 열국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이제 시인은 찬양으로 그의 시를 마무리한다.

(2) 이 절은 본문의 전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마리아 오경, 페쉬타, 탈굼 웅켈로스, 불가타는 마소라 사본의 전통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인역은 8행, 콥란 사본은 6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3) 70인역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래와 같이 8구로 나온다.

εὐφράνθητε οὐρανοὶ ἅμα αὐτῷ  
καὶ προσκυνήσατῶσαν αὐτῷ πάντες υἱοὶ θεοῦ  
εὐφράνθητε ἔθνη μετὰ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  
καὶ ἐνισχυσάτωσαν αὐτῷ πάντες ἄγγελοι θεοῦ  
ὅτι τὸ αἷμα τῶν υἱῶν αὐτοῦ ἐκδικᾶται  
καὶ ἐκδικήσει καὶ ἀνταποδώσει δίκην τοῖς ἐχθροῖς  
καὶ τοῖς μισοῦσιν ἀνταποδώσει  
καὶ ἐκκαθαριεῖ κύριος τὴν γῆν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sup>52</sup>).

(4) 콥란 사본(4QDeut<sup>a</sup> Col. II: Frg. 5 ii)에서는 아래와 같이 6구로 배열된다.

הַרְנִינוּ שְׂמִים עִמּוֹ  
וְהִשְׁתַּחֲוּ לוֹ כָּל אֱלֹהִים

restraints in Israel / when the people offered themselves freely, bless Yahweh”로 제시한다(403).

52) 본문을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늘아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에게 경배하라/ 너희 열국들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강건하여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종들의 피에 대하여 복수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그의 원수들에게 복수와 보복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그의 백성의 땅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כי דם בניו יקום  
 ונקם ישיב לצריו  
 ולמשנאיו ישלם  
 ויכפר ארמות עמו

(5) 70인역을 중심으로 콤란과 마소라 사본을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70인역	콤란사본	마소라사본	비고
1	o	o	x	LXX/Q<->MT
2	o	o	x	LXX/Q<->MT
3	o	x	o	LXX/MT<->Q
4	o	x	x	LXX<->Q/MT
5	o	o	o	LXX/Q/MT
6	o	o	o	LXX/Q/MT
7	o	o	x	LXX/Q<->MT
8	o	o	o	LXX/Q<->MT

① 세 사본의 전통을 살펴보면, 공통의 원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② 마소라 사본은 매우 단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70인역은 지나치게 부연된 느낌을 준다.

③ 70인역의 첫 두 구는 콤란 사본과 일치하며, 만약 이 두 구가 존재하였다면, ‘하늘(שָׁמַיִם)’은 1절과 수미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들(ἄγγελοι θεοῦ)’은 전반부의 ‘하나님의 아들(אֱלֹהֵינ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6) 시를 마무리 하면서, 시인은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조적인 이중 운명을 제시해준다. 이 절에서 ‘그의 백성’이 반복되며, ‘그의 종들’과 ‘그의 대적’은 대조를 이룬다. 대적에게 복수하는 것은 ‘종들의 피’를 갚는 것이다. 이리하여 역사는 다시 제 자리를 찾는다. 이스라엘은 회복되며, 열국들 속에 자리를 잡는다.

\* 주요어

본문 번역, 본문비평, 히브리 고시,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 참고문헌

- 김정우, 『시편 89편: 그 본문과 주석』, 서울: 충신대출판부, 1992.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정중호, “신 32:1-52. 사역,” 『신명기: 역사비평주석』, 서울: 감신대출판부, 2004, 605-636.
- Albright, William Foxwell,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32,” *VT* 9 (1959), 339-346.
- Blau, J., “Über Homonyme und Angeblich Homonyme Wurzeln II,” *VT* 7 (1957), 98-102.
- Brueggemann, Walter, “Social Criticism and Social Vision in the Deuteronomic Formula of the Judges [Judg 3:12; 4:1-2; 6:1; Deut 32],” J. Jeremias and L. Peritt, eds., *Die Botschaft und die Bo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 Cassuto, U., “The Song of Moses (Deu 32:1-43),” *Biblical and Oriental Studies*, vol. I, Jerusalem: Magness Press; Hebrew University, 1973.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 Crenshaw, James L., “Wdorek al-bamotê'ares. [Amos 4:13; Mic 1:3; Dt 32:13a; 33:29b; Job 9:8; Hab 3:15,19 a],” *CBQ* 34 (1972), 39-53.
- Cross, F. and Freedman, D. N., *Early Hebrew Orthography: A Study of the Epigraphic Evidence*, AOS 36, New Have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52, 45-60.
- Cross, F. M., et al., eds.,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XIV Qumran Cave 4 IX Deuteronomy, Joshua, Judges, King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Cutter, William, “Wrestling Lonely [Jacob in Gen 32, Moses in Deut 32],” *Orim* 3 (1987), 125-126.
- Dahood, Mitchell Joseph, “Northwest Semitic notes on Dt 32:20,” *Bib* 54:3 (1973), 405-406.
- Driver, Godfrey Rolles, “Deuteronomy 32:8,” *VT* 2 (1952), 356-357.
- Eissfeldt, O., *Das Lied Moses Deuteronomium 32:1-43 und das Lehrgedicht Asaphs Psalm 78 samt einer Analyse der Umgebung des Mose-Liedes*, Berlin, 1958.
- Fokkelman, J. P., *Major Poems of the Hebrew Bible*, vol. 1, Netherlands: Van Gorcum, 1998.
- Geller, Stephen A., “The Dynamics of Parallel verse: a Poetic Analysis of Deut

- 32:6-1," *HTR* 75 (1982), 35-56.
- Greenfield, Jonas C., "Smitten by Famine, Battered by Plague (Deuteronomy 32:24)," J. Marks and R. Good, eds., *Love & Death in the Ancient Near East*, Guilford, Conn: Four Quarters Pub. Co., 1987.
- Hidal, Sten, "Some reflections on Deuteronomy 32," *Annual of the Swedish Theological Inst*, XI (1978).
- Janzen, J Gerald, "The root pr in Judges 5:2 and Deuteronomy 32:42," *VT* 39 (1989), 393-406.
- Knight, G. A., *The Song of Moses: A Theological Quar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 Knowles, Michael P., "The Rock, His Work is Perfect: Unusual Imagery for God in Deuteronomy 32," *VT* 39 (1989), 307-322.
- Kooij, Arie van der, "The Ending of the Song of Moses: on the pre-Masoretic Version of Deut 32:43," F García Martínez and others, eds., *Studies in Deuteronomy*, 1994.
- Krause, Alfred E., "Historical Selectivity: Prophetic Prerogative or Typological Imperative?," A. Gileadi, ed., *Israel's Apostasy and Restoration*, 1988.
- Lehmann, M. 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erm *twdv*," *VT* 3 (1953), 361-371.
- Lust, Johan, "For I Lift up my Hand to Heaven and Swear: Deut 32:40," F García Martínez and others, eds., *Studies in Deuteronomy*, 1994.
- Luyten, J., "Primeval and Eschatological Overtones in the Song of Moses (Dt 32,1-43)," N. Lohfink, ed., *Das Deuteronomium*, 1985.
- McKane, W., "Poison, Trial by Ordeal and the Cup of Wrath," *VT* 30 (1980), 478-483.
- Mendenhall, George E., "Samuel's 'broken rib': Deuteronomy 32," J. W. Flanagan, ed., *No Famine in the land*, 1975.
- Mihaly, Eugene, "A Rabbinic Defense of the Election of Israel: An Analysis of Sifre Deuteronomy 32:9, Pisqa 3 12 [Hebrew texts]," *HUCA* 35 (1964), 103-143.
- Moran, W. R., "Some Remarks on the Song of Moses," *Bib* 43 (1962), 317-327.
- Olofsson, S., *God is my Rock. A Study of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ical Exegesis in the Septuagint*, Coniectanea Biblica OTS 31, Stockholm: Almqvist & Wilsell Internation, 1990.
- Peels, Hendrik G. L., "On the Wings of the Eagle (Dtn 32,11)-An Old

- Misunderstanding,” *ZAW* 106:3 (1994), 300-303.
- Perlitt, Lothar, “Priesterschrift im Deuteronomium?” *ZAW* 100 (1988), 65-88.
- Rainey, A. F., “엘-아마르나 서신 가나안어에 비추어본 고대히브리어의 접두형 활용,” 박미섭 역, *Hermeneia Today* 20 (2002), 48-69.
- Reichert, Andreas, “The Song of Moses (Dt 32) and the Quest for Early Deuteronomic Psalmody,” *Proceedings of the Nin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The Magnes Press, 1986.
- Robertson, D. A., *Linguistic Evidence in Dating Early Hebrew Poetry*, Missoula, 1972.
- Rummel, S., *Ras Shamra Parallels*,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1981.
- Skehan, Patrick W., “Structure of the Song of Moses in Deuteronomy (Deut 32:1-43),” *CBQ* 13 (1951), 153-163.
- Soggin, J. Alberto, “Jeremias 12:10a: eine Parallelstelle zu Deuteronomy 32:8/LXX?,” *VT* 8 (1958), 304-305.
- Speiser, E. A., “The Stem *pll* in Hebrew,” *JBL* 82 (1963), 302-304.
- Tigay, J. H., *Deuteronomy*, JPS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66.
- Vogt, Ernst, “Deut 32:37-43 ex Qumran,” *Bib* 36:2 (1955), 264-265.
- Weitzman, Steven, “Lessons from the Dying: The Role of Deuteronomy 32 in its Narrative Setting,” *HTR* 87 (1994), 377-393.
- Wiebe, John M., “The Form, Setting and Meaning of the Song of Moses [Deut 32:1-43],” *Studia Bib et Theologica* 17:2 (1989), 119-163.
- Winter, Paul, “Deuteronomy 32:8b: Genesis 1:26,” *ZAW* 67:3-4 (1955), 292.
- Wright, George E., “Lawsuit of God; a Form-critical Study of Deuteronomy 32,” B. W. Anderson, ed., *Israel's Prophetic heritage: J. Muilenburg*, London: SCM press, 1962.
- Wyatt, N., “A New Look at Ugaritic *šdmt*,” *JSS* 37 (1992), 149-153.



<Abstract>

## Some Problems in Translating Archaic Hebrew Poe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ng of Moses in Deut 32:1-43 (Part II)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versity)

Following a previous paper on “Some Problems in Translating Archaic Hebrew Poe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ong of Moses in Deut 32:1-18” (Part I), the author intends to finish this discussion of translation problems with reference to the rest of the Song (vv.19-43). Thus, the aim and the basic format of this paper are nearly the same as the previous one. Here, the author presents a fresh, new Korean translation of the text based on a semantic as well as stylistic analysis of the poem, together with thorough textual criticism. He also finds mythological allusions in the description of the destruction of the people of Israel in v. 24, and tries to reflect it in the translation. He finds it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who the speakers are in vv. 26-35, and tentatively suggests them as follows: the word of Yahweh (v. 26-27ab), the word of the enemy (v. 27cd), the evaluation of the enemy by the poet (vv. 28-29), the word of the enemy and evaluation by the poet (v. 31), evaluation of the true nature of the enemy by the poet (vv. 32-33) and the word of Yahweh (vv. 34-35). A wide textual difference in v. 43 among the Qumran manuscript (six lines), LXX (eight lines) and MT (four lines) is suggested and evaluated with a table.